세계 500위 못든 K푸드 맛집

프랑스 미식국제등급 '라 리스트' 일본·중국에 뒤져

올해 대중문화를 이끈 여러 테마 중 단연 최고는 '음식'(food)다. 지상파와 케이블, 위성을 가리지 않고 안방극장엔 쿡방(요리 프로그램)과 먹방, 미식프로그램들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미식 블로거들이 명성을 떨쳤고 백종원 최현석 등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스타 셰프'도 등장했다. 정부도 관광산업의 전략콘텐츠 중 하나로 'K푸드'를 꼽고 적극 육성하고 있다. 그러면 밖에서 보는 우리의 외식산업, 음식점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La Liste 한국 음식점 순위

식당명	순위	식당명	순위
정식당(서울 청담동)	604위	궁(전주)	729위
필경재(서울 수서동)	625위	라연(서울 호텔신라)	734위
피에르 가르니에 서울(롯데호텔서울)	664위	아리아케(서울 호텔신라)	736위
레스푸와 뒤 이브(서울 청담동)	666위	팔선(서울 호텔신라)	737위
루이상크(서울 선릉)	699위	미 피아체(서울 청담동)	761위

●프랑스관광청 미식국제등급 '라 리스트' 500위 안에 한국 없어

프랑스 관광청은 17일 로랑 파비우스 외무부와 국제개발부 장관(프랑스는 관광청이 외무부 소속)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의 뛰어난 레스토랑 1000개의 순위를 매긴 미식국제등급 '라 리스트'(La Liste·www.laliste.com)를 발표했다.

라 리스트는 프랑스가 관광산업의 주요 상품인 미식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여 개의 가이드북과 수천 개의 온라인 리뷰 사이트를 바탕으로 요식업자 15만명 설문조사, 인터넷 사용자 의견 등을 종합해 평가한 미식등급이다.

라 리스트에서 한국은 27개의 음식점이 순위에 올랐다. 세계 수많은 음식점 중에서 '1000대 레스토랑'에 30개 가까이 이름을 올렸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이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마냥 즐거워할 수도 없다. '라 리스트'의 톱50이나 상위 250개에 한국은 하나도 없다. 27개 음식점 모두 500위 아래에 위치했다.

한국 음식점 중 라 리스트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곳은 604위의 서울 청담동 '정식당'. 임정식 오너셰프가 있는 정식당은 퓨전한식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미국 뉴욕의 '정식당' 미슐랭 가이드에서 한식당 최초로 투 스타(★★)를 받았다. 정식당 외에 서울 수서동의 한식당 '필경재', 롯데호텔서울의 프렌치 식당 '피에르 가르니에 서울'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일본, 127개로 전 세계 최다…중국도 42개 등록

우리나라와 관광산업에서 경쟁을 하는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보다 월등히 많다. 일본은 무려 127개의 음식점을 라 리스트에 올려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도 42개가 순위에 올랐다. 나라별 최고 순위에 오른 곳을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우리가 604위인데 반해 일본은 3위인 도쿄의 일식당 '쿄 아지'를 비롯해 톱10에 3개나 올랐다. 상위 50위에도 10개가 올랐다. 중국도 베이징 홍콩자키클럽의 '더 캐피탈'이 42위를 기록했고 50위 안에 3개가 올랐다.

한편 대표적인 미식 강국 프랑스는 라 리스트에서 일본에 이어 116개로 최다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이 뒤를 이었고,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도 50개 이상의 레스토랑이 선정됐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청담동 정식당 '청담파이'

특별한 '새해 해돋이' 원한다면…제주로 오라

제주호텔들 연말연시 맞아 다양한 이벤트
켄싱턴 제주, 야외 온수 풀장 해돋이 명소

제주도는 이제 어느 계절이 성수기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시사철 관광객으로 북적인다. 비수기로 꼽히던 겨울도 이제는 온화한 날씨와 빼어난 풍광 덕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이런 추세에 맞춰 제주 특급호텔들이 연말연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켄싱턴 제주 호텔은 신년 이벤트 '해피 올 투게더'를 실시한다. 켄싱턴 제주가 자랑하는 사계절 온수 풀장이 있는 루프탑에서 떠오르는 해돋이를 바라보며 새해를 맞는 '루프탑 해돋이'를 비롯해 호텔의 모을 정원과 야자수 산책로에 숨겨진 유리병 메시지를 찾으면 선물을 받는 '액티브 럭키드로', 1년 뒤 받아보는 '느린 우체통', 소믈리에가 추천하는 와인을 마시며 큐레이터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페인팅 파티 with 와인'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호텔 최상층에 있는 루프탑 풀장에서 신년 해돋이를 보는 이벤트를 내놓은 켄싱턴 제주 호텔의 '해피 올 투게더' 사진제공 | 켄싱턴 제주

제주신라호텔은 1월4일부터 31일까지 객실과 왕복 항공권, 숙박, 조식, 브런치, 석식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년 에어텔 '뉴 이어 서프라이즈'를 내놓았다. 수페리어 스위트 객실이 포함된 '프리미엄 타입'을 선택하면 공항과 호텔의 픽업과 샌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얏트 리젠시 제주는 연말연시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는 가족을 위해 1월2일까지 '크리스마스 진저브레드 패키지'를 운영한다. 객실 1박과 진저브레드 하우스 만들기 키트 1개, 율로그 케이크 쿠킹 클래스로 구성했다.

롯데호텔 제주는 1월 1일 7시부터 중문 색달해변에서 진행하는 '2016 새해 해맞이 축제'를 연다. 투숙객 전용으로 제주 전통 오메기 떡과 따뜻한 귤피차를 제공한다. 또한 연인끼리의 바다 위 요트에서 새해 일출을 감상하는 '선라이즈 요트 투어'도 있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는 2월 29일까지 한라산 등반이나 귤따기 체험 등 제주의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윈터 모멘트 패키지'를 운영한다. 제주의 오름 또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수페리어 객실 1박과 호텔의 레저 전문가 익스플로러와 함께 한라산 눈꽃 트레킹이나 겨울 오름 투어 등 겨울 제주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야외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강원랜드, 태백 오투리조트 인수해? 말아?

정선군-태백시 의견 대립에 '진퇴양난'

강원랜드가 태백 오투리조트를 둘러싼 지역갈등 속에서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문제의 발단은 얼마 전 태백시의회가 강원랜드 함승희 대표와 가진 만남에서 현재 법원에 의해 매각이 진행 중인 오투리조트의 인수를 요청했고, 이에 함 대표가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오투리조트 인수가능성이 거론되자 당장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의 폐광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이하 공추위)가 "단지 내 리조트 시설도 흑자 전환시키지 못하는 강원랜드가 또 하나의 부실한 리조트를 인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태백시민연대도 '강원랜드가 정선군민만을 위한 군민기업인가'라는 제목의 반박성명을 통해 "공추위는 태백시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태백 오투리조트는 2005년부터 4403억을 투자했지만 경영부실로 부채가 3641억원에 달해 지난해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공사 역시 최근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퇴출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에 놓인 강원랜드의 고민만 커지고 있다. 실무진의 검토와 관련 임원 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했지만 두 지역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카드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두 지역의 입장 모두 절실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라 오해와 반목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오투리조트 문제는 태백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사업방향 등 함께 검토해야할 사안이 많아 빠른 시간에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고 밝혀 이번 문제가 해를 넘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재범 전문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 연차 사유 '거짓'

직장인들 10명 중 3명은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거짓말로 사유를 댄다는 조사가 나왔다.

다국적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남자 직장인 중 26.8%가 여자 직장인은 33.2%가 휴가를 신청할 때 거짓말을 한다고 응답했다.

연차휴가의 목적으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여행을 꼽았고, 이어 집안행사, 병가 순으로 답했다. 휴가기간으로는 평균 1~2일이 가장 많았고 이어 3~4일, 5~6일이 뒤를 이었다. 7일 이상 연차휴가를 신청한다는 답변자 중에서는 40대 이상이 가장 많아 눈길을 끌었다. (40대 7.9%>30대 5.1%>20대 4.8%)

한편, 명절이나 공휴일을 포함한 징검다리 연휴나 황금연휴 때 연차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1년에 한 번(38.0%) 사용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28.6%)는 답변도 높았다.

김재범 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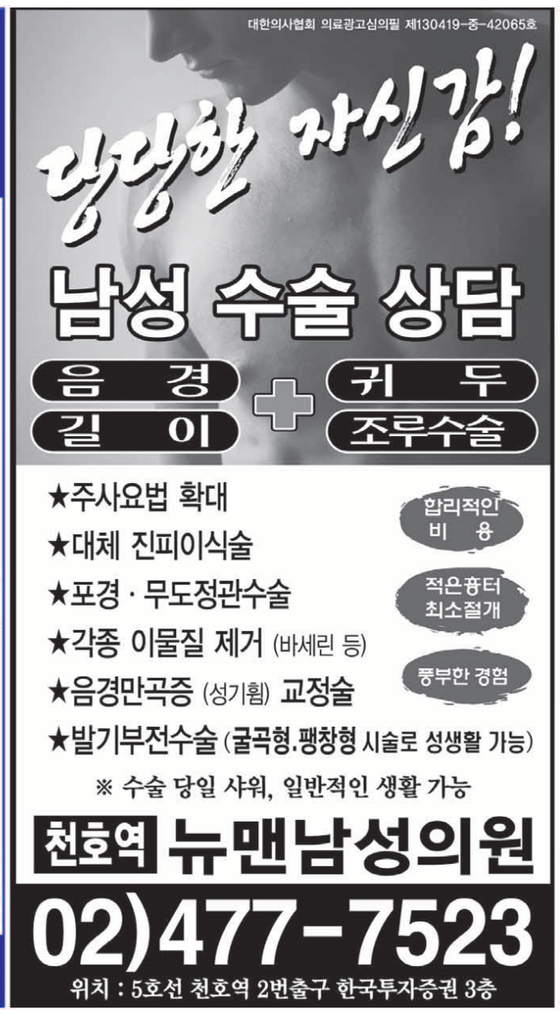
엘리시안강촌 '산타클로스와 스키 타자'

전철타고 가는 스키장으로 유명한 강원도 춘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가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맞아 스페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4일 오후와 25일 이틀간 스키장에서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스키장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간단 게임을 통해 콘도숙박권, 스키상품권, 개그 공연 '웃찾사' 입장권 등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또한 31일에는 개그맨 김한석이 사회를 맡아 록 밴드 공연, 횃불스키, 해넘이 카운트 등의 행사가 열린다. 특히 밤 12시부터는 2016년 새해 첫날을 맞는 불꽃쇼를 실시한다.

그랜드 하얏트 '퐁듀 팝업 레스토랑' 오픈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은 26일부터 겨울철 이벤트로 '퐁듀 팝업 레스토랑'을 오픈한다. 총주방장인 스테판 뫼트가 기획한 '퐁듀 팝업 레스토랑'에서는 치즈 퐁듀를 비롯하여 초콜릿 퐁듀, 오일 퐁듀와 수프 퐁듀 등을 즐길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점심까지 지하2층 제이제이 델리에서 실시한다.

원마운트, 러시아 피겨 댄싱팀 '아이스쇼'

경기도 고양 원마운트는 스노우파크의 얼음 호수 아이스레이크에서 24일부터 러시아 피겨 댄싱팀의 아이스쇼 공연이 하루 3회 열린다. 싱글, 듀엣, 그룹 스케이팅 공연이 15분씩 진행한다. 스노우파크 입장객은 무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실외 아이스링크에서는 스케이팅과 얼음썰매를 모두 즐길 수 있다. 매 정시 입장해 50분 간 이용할 수 있다. 스노우파크나 실외 아이스링크 이용객들은 수온 42℃의 워터파크 사우나와 가족형 휴식 공간 OMT센터를 추가 요금 5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도 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